

## “생물권보전 가치 창조 문화·관광연계 박차”

박우정 고창군수는 취임 3년차를 맞아 그간 착실히 다져온 기반을 토대로 ▲청정하고 정감 있는 환경도시 ▲안전하고 따뜻한 행복도시 ▲아름답고 품격 높은 세계유산도시 ▲이웃과 함께하는 감동도시를 목표로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한해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박 군수는 군민이 진정한 행복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편안하게 쉬어가고, 살기 위해 찾아오는 고창이 될 것으로 보고 무엇보다도 먼저 군민의 행복을 위한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박 군수의 ‘청정하고 인정이 넘치는 한국인의 본향, 행복 고창’을 위한 전략을 살펴봤다.

### 운곡습지·용계마을 일원 생태탐방로·전망대 등 조성 사회안전 인프라 구축·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최선

-생물권보전지역 관련사업 추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미래의 가치이자 고창의 가장 큰 자산을 청정한 자연생태 환경으로 봅니다. 이러한 생물권보전지역을 잘 보호하고 현명하게 이용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환경도시를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아산면 운곡습지 일원에 생태복원과 체험지구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인 운곡습지와 용계마을 일원에 생태탐방로와 생태관찰시설, 습지관찰장과 숲전망대와 운곡람사르 습지 에코존 조성을 통해 친환경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마련해 고창의 뛰어난 자연생태 환경을 보고, 체험하며 머무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심원면 고전, 만돌, 두어, 월산, 하전리 일원에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를 조성하고 있으며 갯벌탐방로와 쉼터 등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으로의 연계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정책 계획은?

●산과 바다 들이 어우러지고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이점을 잘 활용해 도시민들이 찾아오도록 하고 여기에서 군민들의 소득증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고창이 보유한 세계문화유산과 문화재, 자연자원을 잘 보존·관리해 그 가치를 재창출하면 군민의 자긍심도 높이고 군의 품격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창읍성에 판소리명창거리와 전수마을을 조성하고 무장읍성 주변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역사와 문화체험이 가득한 공간을 만들고 고인돌 세계문화유산을 정비해 더욱 쉽고 재미있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농악전승학교와 판소리 성지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세계무형유산인 농악과 판소리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이어



가며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저소득층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과 주민 참여 문화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해 문화예술 저변확대와 차별 없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올 한해 복지정책 계획은?

●고창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홀로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돌봄서비스를 적극 시행하고 일하고자 하는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는 적절한 일자리를 연결하는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어린이생태놀이터를 조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복지시설과 아동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여 보육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산가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을 도울 수 있는 장

애인복지관 신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분만산부인과를 새롭게 마련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생활환경을 마련 하였습니다.

-안전 고창 인프라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재해 예방사업에 주력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황관리와 차량교통이 어렵고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 도로 선형개량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고 고창읍 교촌 급경사지와 건동, 구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하천범람 피해방지를 위한 4개 지구 지방하천과 3개 지구 소하천도 함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속 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인프라를 든든하게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머니의 품 속 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군민들에게 말씀 해 주시요.

●군민 여러분께서 늘 변함없는 애정으로 협력해주셔서 고창군이 내실 있는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군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더욱 투명한 행정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저와 고창군 모든 공직자들은 오직 군민의 행복한 삶과 고창의 발전만을 고민하며 더욱 강한 도전정신과 혼신의 힘을 다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두의 힘을 모아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아오는 고창, 오래도록 머무르는 고창, 군민의 희망이 이뤄지는 '한국인의 본향, 고창'을 이뤄가겠습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특 집

#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환경도시 만들 것”



박우정 고창군수는 “생물권보전지역을 잘 보호하고 현명하게 이용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환경도시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년 릴레이 인터뷰 - 박우정 고창군수

박우정 군수는 군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고창을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와 편안하게 쉬어가고, 살기 위해 찾아오는 고창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민선 6기 3년차를 맞아 그동안 다져온 확실한 기반을 토대로 올해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청정하고 정감 있는 환경도시 ▲안전하고 따뜻한 행복도시 ▲아름답고 품격 높은 세계유산도시 ▲이웃과 함께하는 감동도시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지난해 군정운영 주요 성과를 든다면.

▲7백여 공직자와 6만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의 초석을 마련하고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환경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 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개척, 자연친화적 농어촌 도시, 품격 있는 예술관광산업, 청명한 공직문화 조성'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주력했습니다.

— 생활권보전지역으로서 관련된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지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행정구역 전체가 생활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미래의 가치이자 고창의 가장 큰 자산을 청정한 자연생태 환경으로 봅니다. 따라서 생활권보전지역을 잘 보호하고 현명하게 이용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환경도시를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고창생활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산면 운곡습지 일원에 생태복원과 체험지구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생활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인 운곡습지와 용계마을 일원에 생태탐방로와 생태관찰시설, 습지관찰장과 숲전망대 등을 마련하고 운곡람사르 습지 에코촌 조성을 통해 친환경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마련해 고창의 뛰어난 자연생태환경을 보고, 체험하며 머무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심원면 고전, 만들, 두어, 월산, 하전리 일원에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도 조성하고 있고 갯벌탐방로와 쉼터 등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군민에게는 정감 어린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고향과 같은 편안한 곳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 생활권보전지역과 연계한 관광산업발 소개한다면.

▲산과 바다, 들이 어우러지고 전 지역이 생활권보전지역이라는 이점을 잘 활용해 도 시민들이 찾아오도록 하고 여기에 군민들의 소득증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고창이 보유한 세계문화유산과 문화재, 자연자원을 잘 보존·관리하면서 그 가치를 재창출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의 품격을 높이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창읍상에 관소리명창거리와 전수마을을 조성하고 무장읍성 주변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역사와 문화체험이 가득한 공간을 만들면서 고인들 세계문화유산을 정비해 더욱 쉽고 재미있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농악전승학교와 관소리 성지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세계무형유산인 농악과 관소리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운곡람사르 습지 에코촌 조성 친환경 숙박·편의시설 마련 심원면 고전리 등 5개리 일대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추진 '한국인의 본향' 일궈나갈 것

니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이어가며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저소득층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과 주민 참여 문화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해 문화예술 자변 확대와 차별 없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올 한해 주요 복지정책은?

▲우선 고창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생활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홀로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돌봄서비스를 적극 시행하고 일하고자 하는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는 적절한 일자리를 연결해 드릴 수 있도록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어린이생태놀이터를 조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복지시설과 아동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해 보육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산가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 안전 고창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재해 예방사

업에 주력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CCTV통합관제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황관리와 차량교통이 어렵고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 도로 선형개량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고 고창읍 교촌 급경사지와 건물, 구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하천법람 피해방지를 위한 4개 지구 지방하천과 3개 지구 소하천도 함께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생활 속 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인프라를 든든하게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머니의 품 속 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방안은?

▲무엇보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농어민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고 부자 되는 농업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기반을 다져 우리지역 농수축특산물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돈 버는 농업을 위한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금을 지원하고 밭 농업직불제와 중소형 농기계지원,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지원과 해리면 하전리 일원에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 생신비 절감을 통한 소득증대가 이뤄지도록 축산생산기반을 구축하며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수산업 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지역 생산품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인증해 청정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도시 소비자들에게 고창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돈 버는 농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창은 귀농귀촌 정책이 경쟁력이 있는데 그 비결과 앞으로의 방향은?

▲최근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제2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들도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통해 인구 증가와 경제적 활력을 도모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창은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큰 이점이 있고 여기에 문화와 예술, 체육활동 등 여가생활을 함께 즐기기에 알맞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며 복분자와 수박을 비롯해 여러 농특산물의 높은 브랜드 파워로 소비시장에서 각광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시민 귀농귀촌을 유치하고 든든한 행정적 지원을 유도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점들이 도시민들로 하여금 고창으로 향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한 귀농귀촌인들은 또다른 도시민을 고창으로 초대하여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귀농귀촌학교에서 영농교육과 실습이 이뤄지고 있으며 부안면 용산리에 80여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있어 완공 후에는 귀농귀촌인들의 창업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국인의 본향, 고창'을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고창은 생물권보전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유산인 고인돌유적지, 세계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와 고창농악까지 그야말로 문화유산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오랜 세월부터 고창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아왔다는 말일 것이고 누구나의 마음 속 고향의 이미지로 떠올랐만한 요소들이 고창에는 가득합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포근함이 있고, 청정한 자연환경이 살아 숨 쉬고 있어 고향의 맛과 멋, 문화의 정취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며 언제 찾아와도 낯설지 않은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을 고창에서만큼은 잘 느낄 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정체성과 근본을 잘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고창의 수많은 자원들을 많은 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잘 다듬고 현명하게 이용하여 주민들에게는 소득증대의 기쁨까지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에서 '한국인의 본향, 고창'을 토대로 하여 민선 6기 군정 목표인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을 이뤄가고자 합니다.

/고창=신동일기자·sdl@



# 기획

## “청정하고 인정 넘치는 한국인 본향 ‘고창’ 구현

세계문화유산-문화재, 자연자원 보존-관리 가치 재창출해  
군민 자긍심 높이고 군 품격 높이는 관광인프라 구축키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기반 다져 우리 지역 농수축특산물  
경쟁력-브랜드 가치 높여 ‘교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



### 2016 고창군 새해설계

고창군이 민선 6기 1,2년차인 2014,15년도에는 ‘명품고창, 청정 고창’이라는 튼튼하고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집권 3년차인 2016년에는 ‘완성’을 위한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와 서까래를 올려 △청정하고 정감 있는 환경도시 △안전하고 따뜻한 행복도시 △아름답고 품격 높은 세계유산도시 △이웃과 함께하는 감동도시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펼쳐 보였는데, 이를 박우정 군수에게 들어 보기로 하자.

#### /고창 = 김병현 기자

△ 지난 해 군정운영 주요 성과를 든다면  
700여 공직자와 6만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의 초석을 마련하고 세계 최고의 자연생태환경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해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 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개척, 자연친화적 농어촌 도시, 품격 있는 예술관광산업,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에 행정력을 집중했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주력했다.

△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관련된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 한해 계획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미래의 가치이자 고창의 가장 큰 자산을 청정한 자연생태 환경으로 본다.

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을 잘 보호하고 현명하게 이용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환경도시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아산면 운곡습지 일원에 생태복원과 체험지구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인 운곡습지와 용계마을 일원에 생태탐방로와 생태관찰시설, 습지관찰장과 숲전망대 등을 마련하고 운곡탐사르 습지 에코촌 조성을 통해 친환경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마련해 고창의 뛰어난 자연생태환경을 보고, 체험하며 머무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관광산업으로 연계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관광정책은

산과 바다, 들이 어우러지고 전 지역이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이점을 잘 활용해 도시민들이 찾아오도록 하고 여기에 군민들의 소득증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고창이 보유한 세계문화유산과 문화재, 자연자원을 잘 보존·관리하면서 그 가치를 재창출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의 품격을 높이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고창읍성에 관소리명창거리와 전수마을을 조성하고 무장읍성 주변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역사와 문화체험이 가득한 공간을 만들면서 고인돌 세계문화유산을 정비해 더욱 쉽고 재미있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 △ 읍 한해 복지정책 계획은

우선 고창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생활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시

으로 본다.  
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을 잘 보호하고 현명하게 이용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환경도시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아산면 운곡습지 일원에 생태복원과 체험지구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인 운곡습지와 용계마을 일원에 생태탐방로와 생태관찰시설, 습지관찰장과 숲전망대 등을 마련하고 운곡탐사르 습지 에코촌 조성을 통해 친환경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마련해 고창의 뛰어난 자연생태환경을 보고, 체험하며 머무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관광산업으로 연계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관광정책은

산과 바다, 들이 어우러지고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이점을 잘 활용해 도시민들이 찾아오도록 하고 여기에 군민들의 소득증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고창이 보유한 세계문화유산과 문화재, 자연자원을 잘 보존·관리하면서 그 가치를 재창출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의 품격을 높이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고창읍성에 관소리명창거리와 전수마을을 조성하고 무장읍성 주변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역사와 문화체험이 가득한 공간을 만들면서 고인돌 세계문화유산을 정비해 더욱 쉽고 재미있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 △ 읍 한해 복지정책 계획은

우선 고창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생활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시

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홀로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돌봄 서비스를 적극 시행하고 일하고자 하는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는 적절한 일자리를 연결해 드릴 수 있도록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60세 이상 어르신들까지 늘려 무료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치매치료관리비도 지원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에 더욱 노력하겠다.

이밖에도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어린이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복지시설과 아동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여 보육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산가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안전 고창 인프라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재해 예방사업에 주력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황관리와 차량교통이 어렵고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도로 선형개량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고 고창읍 교촌 급경사지와 건물, 구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하천범람 피해방지를 위한 4개 지구 지방하천과 3개 지구 소하천도 함께 정비해 나아갈 계획이다.

#### △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방안은

무엇보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농어민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고 부자되는 농업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생각이다.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기반을 다져 우리지역 농수축특산물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돈 버는 농업을 위한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금을 지원하고 밭농업직불제와 중소형 농기계지원,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지원과 해리면 하련리 일원에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증대가 이뤄지도록 축산생산기반을 구축하며,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수산업 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6차산업화를 지원해 농촌의 전통적인 생활화 문화를 체험관광화 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감 있고 따뜻한 고창의 품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 고창은 귀농귀촌 경쟁력이 높은 고장인데,  
그 비결과 앞으로 방향은

최근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제2의 인생  
을 계획하면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  
나고 있다.

전국의 수많은 자치단체들도 귀농귀촌인의 유  
입을 통해 인구증가와 경제적 활력을 도모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고창은 생물권보전지  
역이라는 큰 이점이 있고 여기에 문화와 예술, 체  
육활동 등 여가생활을 함께 즐기기에 알맞은 여건  
이 조성되어 있으며 복분자와 수박을 비롯해 여러  
농특산물의 높은 브랜드 파워로 소비시장에서 각  
광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사단법인 귀촌협의회와  
행정조직이 든든한 협력을 이루고 선배 귀농귀촌  
인들이 멘토단을 구성하여 애로사항과 정착 조언  
등 적극적 소통과 교류를 하고 있으며, 부안면 용  
산리에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체류형농업창  
업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있어 완공 후에는 귀농귀  
촌인들의 창업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고창은 생물권보전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  
산인 고인돌유적지, 세계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  
와 고창농악까지 그야말로 문화유산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이는 아주 오랜 세월부터 고창 지역에 많은 사  
람들이 터를 잡고 살아왔다는 말일 것이고 누구나  
의 마음 속 고창의 이미지로 떠올릴만한 요소들이  
고창에는 가득하다. 따라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포근함이 있고, 청정한 자연환경이 살아 숨 쉬고  
있어 고창의 맛과 멋, 문화의 정취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기에 사용하게 됐다.

따라서 민선 6기 군정 목표인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을 이루기 위한 토대로 삼고자 한  
다.

△ 끝으로 군민들에게 한 말씀

군민 여러분께서 늘 변함없는 애정으로 협력해  
주셔서 고창군이 내실 있는 발전을 해 나갈 수 있  
었습니다. 올해도 군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더욱  
투명한 행정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우리군이 그동안 마련해 놓은 미래 행복 고창의  
큰 밑그림을 성장동력 삼아 내실 있는 사업 추진  
으로 구체적 성과를 하나하나 이뤄 갈 것입니다.

저와 고창군 모든 공직자들은 오직 군민의 행복  
한 삶과 고창의 발전을 고민하며 더욱 강한 도  
전정신과 혼신의 힘을 다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  
회를 열어나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작고 미약하지만 6만 군민이 결  
집하면 크고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두의 힘을  
모아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아오는 고창, 오래도록  
머무르는 고창, 군민의 희망이 이뤄지는 '한국인  
의 본향, 고창'을 이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